

읽고 듣고 보고 쓰는 모임



2026.9,16 오후 7시

예엄 작은도서관

2026년 6월 9 · 16일

글 읽고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가家的 형제들』
「대심문관」(제 2부 5장 5)

음악 듣고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현악 사중주 15번>

그림보고

이반 크람스코이,
<광야의 그리스도> 외

쓰기

대심문관 심문 참관 후기 쓰기

Dmitri Shostakovich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주 15번>

- 초연 :
- [Dmitri Shostakovich - String Quartet No. 15, Op. 144 \(1974\)](#)
- **타네예프 사중주단 (Taneyev Quartet)**
- **역사적 정통성:** 1974년 11월 15일,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 작품을 **세계 최초로 초연한 단체**이다.
- **연주 특징:** 쇼스타코비치가 생전 연주자들에게 직접 주문했던 "파리가 공중에서 뚝뚝 떨어질 정도의 느린 템포와 정적"을 가장 원초적으로 구현해 냈다. 작곡가의 숨결과 의도가 왜곡 없이 고스란히 살아 있으며, 날것 그대로의 비장함과 어둠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레코딩을 남겼다.

Shostakovich, String Quartet 15 - Video Score - Borodin Quartet

- **보로딘 사중주단 (Borodin Quartet)**
- **쇼스타코비치 해석의 거장:** 쇼스타코비치 생전에 그의 사중주 전곡을 함께 연구하고 연주하며 작곡가와 가장 깊은 음악적 교감을 나눈 러시아 최고의 명문 사중주단이다.
- **연주 특징:** 이들의 연주는 극단적인 슬픔 속에서도 지극히 정제된 음색과 완벽한 구조적 균형 감각을 보여준다. 멜로디아(Melodiya) 레이블 등에서 남긴 전곡 녹음 중 15번은, 첼로의 길게 늘어지는 지속음과 바이올린의 날카로운 피치카토가 자아내는 대비를 통해 인간이 죽음 앞에서 마주하는 근원적 고독을 정교하게 다듬어진 슬픔으로 표현한다.

String Quartet No. 15 in E-Flat Minor, Op. 144: III. Intermezzo

쇼스타코비치 사중주단 (Shostakovich Quartet)

- **작곡가의 이름을 헌정받은 단체:** 작곡가의 음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단체명으로 삼은 현악 사중주단이다.
- **연주 특징:** 보로딘 사중주단에 비해 조금 더 거칠고 과감한 다이내믹을 구사한다. 2악장 '세레나데'에서 유령의 외침처럼 울리는 괴기스러운 크레센도 음형이나 5악장 '장송 행진곡'의 무거운 타격감을 극적으로 살려내어, 소비에트 체제 아래 희생된 영혼들을 위한 처절한 통곡처럼 들리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String Quartet No. 15 in E-Flat Minor, Op. 144: IV. Nocturne. Adagio (Live)

- **다넬 사중주단 (Quatuor Danel)**
- **러시아 전통의 현대적 계승:** 비록 활동 기반은 유럽에 있으나 러시아 음악의 대가들을 사사하며 쇼스타코비치 사중주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단체이다. (최근에는 프란츠 바이어(Franz Beyer)의 정통 러시아식 사중주 기법을 이어받아 전곡 녹음을 진행했다.)
- **연주 특징:** 현대적인 고음질 녹음을 통해 15번 사중주 특유의 '미니멀한 텍스처'를 극도로 투명하게 포착해 낸다. 악기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고독하게 독주를 이어가는 부분에서의 공간감과, 마지막 6악장 '에필로그'에서 음들이 파편화되어 허무 속으로 완전히 소멸해 가는 과정들을 시각적일 정도로 선명하게 청각화한다.

-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mitri Shostakovich, 1906~1975)는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향곡 작곡가이자, 소비에트 연방(소련)이라는 거대한 체제의 압박 속에서 평생을 고뇌했던 '냉전 시대의 증언자'이다.
- 그는 서양 고전음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불협화음과 날카로운 풍자, 깊은 비극성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1. 체제와의 갈등: 칭송과 검열의 줄타기

- 쇼스타코비치의 삶과 예술은 소련의 정치적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그는 당대 최고의 천재로 인정받았으나, 스탈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악을 썼다는 이유로 평생 두 차례의 큰 숙청 위기를 겪었다.

- **1차 위기 (1936년):** 오페라 《므첸스크의 맥 베스 부인》이 스탈린의 분노를 사며 프라우다 신문으로부터 "음악이 아니라 혼돈"이라는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그는 고심 끝에 <교향곡 5번>을 발표하여 당의 요구(사회주의 리얼리즘)와 자신의 예술적 자존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극적으로 복권되었다.

- **2차 위기 (1948년):** '주다노프 비판'으로 인해 그의 음악이 '형식주의적(퇴폐적이고 서구화된 음악)'이라는 낙인이 찍혀 대학교수직에서 해임되고 작품 연주가 금지되는 수모를 겪었다.
- 이 때문에 그는 대외적으로는 체제를 찬양하는 장엄한 교향곡이나 영화 음악을 썼지만,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내밀한 고통과 비판 의식을 **현악 사중주**나 **독주곡** 속에 숨겨두는 이중적인 예술적 삶을 살아야 했다.

2. 음악적 특징: 풍자와 비극, 그리고 암호

- **그로테스크(Grotesque)와 반어법:** 그의 음악에는 행진곡풍의 밝은 선율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기쁨이 아닌, 체제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춤추는 듯한 기괴함과 날카로운 풍자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2. 음악적 특징: 풍자와 비극, 그리고 암호

- **음악적 서명 'DSCH'**: 자신의 이름을 독일식 철자(D. Schostakowitsch)로 바꾼 뒤, 이를 음명으로 환산한 **D-E \flat -C-B(\$d-e \flat -c-b\$)** 모티브를 작품 곳곳에 숨겨놓았다. 이는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도 "이 음악은 나 개인이 쓴 것"이라는 실존적 저항의 표식이었다.

3. 핵심 걸작 목록

장 르	대표 작품	특징 및 역사적 배경
교 향 곡	교향곡 5번 라단조	그의 가장 유명한 곡. 표면적으로는 승리와 극복을 노래하지만, 이면에는 체제에 대한 비장한 탄식이 깔려 있음.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포위된 레닌그라드 시민들을 위로하고 저항 의지를 고취한 기념비적 작품.
현 악 사 중 주	현악 사중주 8번 다단조	'파시즘과 전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라는 부제가 붙었으나, 사실상 작곡가 자신을 위해 쓴 슬프고 격렬한 진혼곡. 'DSCH' 모티브가 전면에서 등장함.
	현악 사중주 15번	생의 마지막 해에 남긴 작품으로, 6개의 악장이 모두 느린 아다지오로 구성된 극단적인 정적과 죽음의 사유.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심문관>과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주 15번>

Shostakovich –

String Quartet No. 15

in E-flat minor, Op. 144

- 두 작품의 가장 강렬한 예술적 장치는 거대한 담론 뒤에 배치된 '침묵(Silence)'이다.
- <대심문관>의 침묵:대심문관이 지상의 권력, 기만,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한 시간 가깝게 정교하고 냉혹한 독백을 쏟아내는 동안, 예수는 단 한 마디의 반박도 하지 않고 철저한 침묵을 지킨다. 이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이성의 논리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신적 자비와 자유의지를 웅변하는 가장 강렬한 대답이다.

- **<현악 사중주 15번>의 정적:**쇼스타코비치는 이 곡을 연주할 때 "파리가 공중에서 뚝뚝 떨어질 정도로" 느리고 무겁게 연주할 것을 요구했다. 곡의 텍스처는 극도로 단순화되어, 하나의 악기가 길게 지속음을 내는 동안 다른 악기가 고독한 독주를 이어가다 결국 완전한 허무의 침묵(Epilogue) 속으로 소멸한다.
- **연결점:**대심문관의 궤변을 얼어붙게 만든 예수의 침묵처럼, 쇼스타코비치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세속의 모든 소음과 이데올로기적 선동을 걷어내고, 오직 '아다지오'의 극단적인 정적과 침묵을 통해 죽음이라는 실존적 거대함에 응전한다.

- 두 작품은 '거대한 체제(System)가 인간의 영혼과 자유를 억압할 때, 개인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거대한 알레고리(Allegory)이다.
- **대심문관의 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수거하고 빵과 기적을 배급하며 인류를 통제하는 가톨릭(예수회)의 전제정치적 시스템을 대변한다. 이는 겉으로는 평화와 안정을 약속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영혼의 수용소이다.
- **쇼스타코비치의 소비에트 체제:** 작곡가는 평생을 스탈린주의를 비롯한 소비에트 연방의 엄격한 검열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 살았다. 당의 요구에 맞춘 장엄한 교향곡을 작곡해야 했던 그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비밀(고독과 공포)을 '현악 사중주'라는 내성적인 장르에 숨겨 표출해 왔다.

- **연결점:** <대심문관>이 이반의 입을 빌려 폭로한 "인간의 영혼을 관리하는 영리한 전체주의"의 스펙트럼은, 쇼스타코비치가 평생 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소비에트 체제의 억압과 완벽히 궤를 같이한다. <15번> 사중주에서 유령의 외침처럼 울리는 기괴한 크레센도(2악장 세레나데)와 비장한 카덴차는 대심문관의 감옥에 갇힌 예수의 처지와 다르지 않은 작곡가 자신의 고독한 초상이다.

- 두 텍스트의 이면에는 인간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비극적 희생자 모티브'가 자리 잡고 있다.
- **대심문관의 자기기만:** 대심문관은 백성들에게 "죄를 지어도 좋다, 그 벌은 우리가 지옥에 가며 대신 떠맡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는 자신들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신을 배신하고 저주를 짊어진 '비극적 은인'이라며 기만을 정당화한다.
- **쇼스타코비치의 진혼곡:** 쇼스타코비치는 말년에 이르러 심각한 육체적 쇠약 속에서 이 곡을 썼다. 6개의 모든 악장이 아다지오로 이어지는 이 기괴한 구조는 스스로를 위한 진혼곡(Requiem)이자, 체제의 압박 속에서 타협하고 기만하며 살아남아야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뼈아픈 참회록이다.

- **연결점:**대심문관이 "인류의 빵을 위해 신을 배반한 죄책감"을 토로하듯, 쇼스타코비치는 <15번>의 5악장 '장송 행진곡'과 6악장 '에필로그'를 통해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영혼에 새겨진 상흔과 죄책감을 음악적 파편으로 흩뿌린다. 두 작품 모두 인간의 나약함과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 구조적 완결성: 3의 배수와 서사적 마침표
- 형식론적인 측면에서도 두 작품은 기묘한 구조적 정합성을 보인다.
- **<대심문관>의 3단계 유혹:**이반의 서사시는 사탄이 광야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혹(빵, 기적, 권력)을 축으로 전개되며, 이를 거부한 예수와 이를 받아들인 교회의 대립으로 구조화된다.
- **<현악 사중주 15번>의 6개 아다지오:**쇼스타코비치는 그의 마지막 사중주를 정확히 6개(3의 배수)의 느린 악장으로 구성하여 예외 없는 Attacca(쉼 없이 연주)로 묶었다.

- **연결점:**이반이 세 가지 유혹이라는 촘촘한 기하학적 논리로 신의 세계를 거부했듯이, 쇼스타코비치는 6개의 아다지오라는 전무 후무한 형식적 설계를 통해 생의 마지막 관문을 닫아걸었다. 논리의 정점에서 터져 나오는 예수의 '입맞춤'처럼, <15번>의 마지막 에필로그는 앞선 악장들의 비극적 주제들을 서서히 소멸시키며 영원한 안식으로 귀결된다.

결국 <대심문관>이 "이토록 부조리하고 억압적인 세계에서 신의 자비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학적 질문이라면,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주 15번>은 그 지옥 같은 고독과 체제의 압박을 견뎌낸 노(老)거장이 지상의 삶을 마감하며 침묵과 음의 파편으로 써 내려간 음악적 대답이다. 두 작품 모두 인간 실존의 가장 어두운 심연(내림마단조의 세계)을 통과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초월적 경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주 15번>

- 초연 :
- [Dmitri Shostakovich - String Quartet No. 15, Op. 144 \(1974\)](#)
- **타네예프 사중주단 (Taneyev Quartet)**
- **역사적 정통성:** 1974년 11월 15일,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 작품을 **세계 최초로 초연한 단체**이다.
- **연주 특징:** 쇼스타코비치가 생전 연주자들에게 직접 주문했던 "파리가 공중에서 뚝뚝 떨어질 정도의 느린 템포와 정적"을 가장 원초적으로 구현해 냈다. 작곡가의 숨결과 의도가 왜곡 없이 고스란히 살아 있으며, 날것 그대로의 비장함과 어둠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레코딩을 남겼다.

Shostakovich, String Quartet 15 - Video Score - Borodin Quartet

- **보로딘 사중주단 (Borodin Quartet)**
- **쇼스타코비치 해석의 거장:** 쇼스타코비치 생전에 그의 사중주 전곡을 함께 연구하고 연주하며 작곡가와 가장 깊은 음악적 교감을 나눈 러시아 최고의 명문 사중주단이다.
- **연주 특징:** 이들의 연주는 극단적인 슬픔 속에서도 지극히 정제된 음색과 완벽한 구조적 균형 감각을 보여준다. 멜로디아(Melodiya) 레이블 등에서 남긴 전곡 녹음 중 15번은, 첼로의 길게 늘어지는 지속음과 바이올린의 날카로운 피치카토가 자아내는 대비를 통해 인간이 죽음 앞에서 마주하는 근원적 고독을 정교하게 다듬어진 슬픔으로 표현한다.

String Quartet No. 15 in E-Flat Minor, Op. 144: III. Intermezzo

쇼스타코비치 사중주단 (Shostakovich Quartet)

- **작곡가의 이름을 헌정받은 단체:** 작곡가의 음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단체명으로 삼은 현악 사중주단이다.
- **연주 특징:** 보로딘 사중주단에 비해 조금 더 거칠고 과감한 다이내믹을 구사한다. 2악장 '세레나데'에서 유령의 외침처럼 울리는 괴기스러운 크레센도 음형이나 5악장 '장송 행진곡'의 무거운 타격감을 극적으로 살려내어, 소비에트 체제 아래 희생된 영혼들을 위한 처절한 통곡처럼 들리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String Quartet No. 15 in E-Flat Minor, Op. 144: IV. Nocturne. Adagio (Live)

- **다넬 사중주단 (Quatuor Danel)**
- **러시아 전통의 현대적 계승:** 비록 활동 기반은 유럽에 있으나 러시아 음악의 대가들을 사사하며 쇼스타코비치 사중주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단체이다. (최근에는 프란츠 바이어(Franz Beyer)의 정통 러시아식 사중주 기법을 이어받아 전곡 녹음을 진행했다.)
- **연주 특징:** 현대적인 고음질 녹음을 통해 15번 사중주 특유의 '미니멀한 텍스처'를 극도로 투명하게 포착해 낸다. 악기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고독하게 독주를 이어가는 부분에서의 공간감과, 마지막 6악장 '에필로그'에서 음들이 파편화되어 허무 속으로 완전히 소멸해 가는 과정들을 시각적일 정도로 선명하게 청각화한다.

